

“중생구제 지장보살 드라마틱하게 묘사”

창작국악교성곡 '지장경' 작곡 김희경 씨



합창·무용·범패등 총 9장 2시간 대곡

“작곡전이나 작곡중에 (지장경)를 수십번 읽고 반영규선생님이 쓰신 가사를 수백번도 더 읽었습니다. 육도중생들을 교화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해탈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님의 크신 서원이 읽을수록 가슴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곡으로 심혈을 기울였기에 완성한 소감이 남다르지만 특히 7살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작곡에 임했다고. 이 곡에는 그리운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과 아내가 죽은뒤 재혼않고 혼자 살아온 아버지의, 아내를 그리는 자아비의 애절한 마음까지 담겨 있다.

“우 모음을 많이 활용하여 약장악장을 연결시켰습니다. 같은 음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선율과 화음이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며 뒤로 갈수록 고음화됩니다. 가없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지장보살의 간절한 열원을 표현한 것이지요.”

지장경을 소재로 했다하여 우울한 곡으로 예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곡 전체가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있어 힘있고 드라마틱하며 ‘죽음과 삶이 돌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다.

김희경씨는 “화엄경 범화경 등 경전을 계속 작곡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이경숙 기자

명품비 뮤지컬 '님의 침묵' 13년만에 재연

주연 김갑수 음악 유승엽씨



만해스님 연기로 음악으로 환생

만나볼시다

오는 9월10일부터 26일까지 여수의 정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님의 침묵'이 공연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대에서의 뮤지컬이 지 금처럼 호응을 받기 훨씬 이전인 지난 83년 초연때 3개월간 관객 5만여명을 동원하여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가늠해 주목을 받았던 '님의 침묵'. 13년만 이 같은 주연(김갑수) 연출(김

스님의 내면 연기 혼신 김갑수

다양한 장르 29곡 편곡 유승엽

창연) 음악(유승엽)의 명품비 이면에는 어떠한 속속된 변화를 보여주며 관객을 사로잡을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초연때는 객석 2백석의 소규모였으나 이제는 대형무대에서 하는 만큼 뮤지컬의 스케일이 한층 크고 박력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스님이라는 거목에 맞는 상징적이고 격정적인 선율과 무용으로 이루어진 2시간 10분 내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유승엽씨는 이번 뮤지컬을 위해 29곡의 노래를 새롭게 편곡했다. 가곡 트로트 록 등 다양한

특별기고

올해 교계가 내건 과제는 '청소년 포교의 해'이다. 그것은 백년이나 올은 과제이고 때늦은 과제이기도 하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지 1천6백년의 역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제 어느 어떤 전통과 토착적인 가치도 불교의 그것에 미칠 수 없도록 불교의 사상 및 신앙 그리고 그 실천의 덕목들은 이 땅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런 중에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불교가 혹은 너무 오래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낡은 것으로 여기게 되거나 과거의 유산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불교의 진리가 낡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견줄만한 것이 불교 쪽에서는 거의 없다.

우리는 올해 벼두 '어린이불자를 키우자'라고 선언한 바 있거니와 이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교계 유일의 어린이 불교잡지 <동쪽나라>가 그 누적된 부담 때문에 사실상 중간이라는 비극에 이르렀다.

그동안 <동쪽나라>가 끼친 어린이불자 키우기, 어린이 불자의 긍지 제고, 어린이와 십대 청소년에 걸친 불자 및 관심자를 불교적인 꿈의 세계를 다양한 읽을거리로 제공하는 것은 어떤 대가람 종창보다 더 뜻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나라>가 더이상 속간될



고은 <시인>

'동쪽나라'를 살리자

“새싹불자 키우는 대가람 종창보다 미래불교 주춧돌 놓기”

남은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닌 항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제1차, 제2차 대전 그리고 냉전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제까지의 서구중심의 문명이 그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그것의 원대한 극복을 불교에서 찾는 일이 하나의 사상사적 숙제이기도 했다.

서양에서의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이 땅의 오랜 불교와 함께 살아온 우리는 불교에서 새로운 가치발견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없이 없다. 특히 불교를 낡은 종교로 오도함으로써 젊은 기복신앙으로만 만족하는 일은 지적되어 마땅하다.

이런 실태인데 눈을 밖으로 돌려 본다면 다른 종교들이 어린이 신앙과 청소년 종교에의 구조적인 장려는 실로 무서울 정도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 땅에서 어린이 신앙의 과정이 극히 빈약한 우리 불교는 그 장래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아마도 이같은 위기의식이 올해를 '청소년 포교의 해'로 삼아 조금이나마 어린이 및 청소년 불교에 힘을 보태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 포교의 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면할 수 밖에 없도록 한 일이 눈에 띄지 않는다.

다른 종교들이 어린이나 청소년을 수 없게 된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 교계의 실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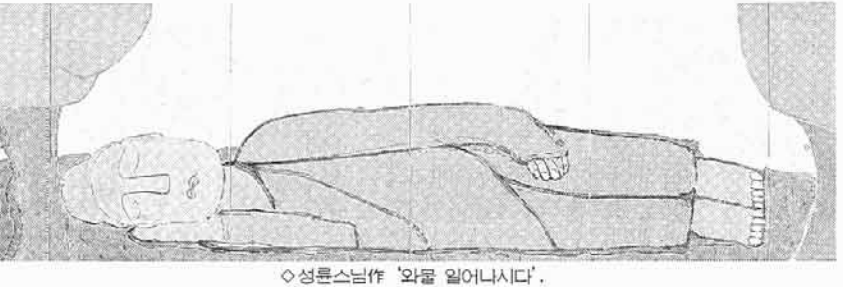
이제라도 늦지 않다. <동쪽나라>를 살려내어 어린이 불자, 청소년 불자의 오랜 벗으로 지속시켜 주지 않으면 이는 1천만 불자를 자랑하는 한국불교의 면목이 내겐개지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동쪽나라>가 높은 취지를 내걸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은 일은 높은 불교, 과거의 불교를 오늘의 불교와 내일의 불교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바 크다. 광복 50주년인 지난해 <동쪽나라> 어린이들의 탐골공원 행사나 백두산등반 행사들은 정부 당국이나 사회 각계의 칭송을 집중시킨 바 있다.

어디 그뿐인가. <동쪽나라>의 지지를 모르는 창이 그 자체아말로 교계의 쇠신하는 문화역량이기도 할 것이다.

불교계가 어린이불자들의 잡지 <동쪽나라>를 살려내지 않으면 <동쪽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불교의 장래가 없는 것으로 판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동쪽나라>를 살리자! 이 외침만이 올해 '청소년 포교의 해'를 넘어 한국 불교의 끝없는 희망에 닿고 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외침으로 그치지 않고 당장 <동쪽나라>가 속간되는 경사로 나타날 때의 희망가운데 불교의 중흥이 가능하다.



'와물 일어나시다' 30여점 전시

성륜스님 19~27일 갤러리 서호

“불고기들의 합창” “돌이켜 보는 삶” 등 개인전과 이벤트로 잘 알려진 성륜스님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갤러리 서호(02-723-1864)에서 '와물 일어나시다' 주제로 작품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연꽃과 부처님을 소재로 문자와 형태의 합일을 선적(線的)으로 표현한 30여 작품이 선보인다.

평론가 정충락씨는 “소리없는 언어는 광명의 검치기를 입체화해 비우고 불무명을 투명하게 수용하여 신명나며 재미있게 구축한 성륜식의 큐비즘을 새롭게 이워놓고 있다”고 평한다.

“역사속에서 걸어온 인물들”

김홍석그림전 성철스님등 만날 기회

만해 성철 관음스님, 최익현 황현 김옥균 진봉준 흥범도 신채호 안창호 김구 여운형선생, 그리고 문익환 윤이상 김남주 최순우 김수환 임창순 박경리 김근태 사... 이렇듯 현대 우리 근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들이다.

전통 재료와 기법에 의한 역사인물화를 그려온 김홍석씨가 '역사속에서 걸어온 인물들'이란 제목으로 근 현대인물 20인을 그린 작품전을 27일까지 견지동 동산방화당(02-733-3877)에서 갖고 있다.

지난해 전통기법에 의해 성철스님의 영정을 재현, 그림전을 가져 큰 반향을 일으킨 김씨는 대상 인물들을 세심한 묘사력과 뒤에서 색깔을 입히는 배치를 이용한 전신적인 기법으로 재창조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시회에 맞추어 강만길교수(고려대) 김성동씨(소설가) 등의 20명을 조명한 인물화와 함께 작품을 실은 역사인물화집 <역사의 이름>도 함께 출간됐다.



김홍석씨의 '역사속에서 걸어온 인물들'展에 나온 관음스님 영정.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기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니야 할 마음기법까지, 세세한 일타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지할 수 있는 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법포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요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